

‘더 나은 미래’...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

민주주의 성지 전북서 정치·민생 혁신 깃발

전북자치도당위원장에 신원식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
“희망의 정치·생산적 정치·따뜻한 정치 펼쳐 나갈 것”
정부여당 국정 기초 전환·거대 야당 도덕성 회복 등 결의
이낙연 인재위원장 “신당 창당, 민주세력 재건·확장”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칭)새로운미래가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를 갖고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정치·민생 혁신의 깃발을 꽂았다.
새로운미래는 지난 27일 전북자치도당 창당대회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이어받아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전주 롯데시네마 전주평화회 2층에서 열린 및 지지자 600여명이 함께한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가 열렸다.

신원식 전 전북도 정부부지사, 차영광 전 전북도지사, 김대중 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제9대)이 공동창당위원장을 맡았다.
또 대외협력위원은 김진 전 JCOM 회장, 정부위원은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 등이 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거대 양당의 횡포로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 전통을 되살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신원식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 지난 27일 전주 소재 롯데시네마 전주평화회장에서 열린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에는 이석현·서효영·신정현 공동창당준비위원장과 이낙연 인재위원장,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 장덕천 당헌재정위원장, 박시중 사무위원장(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신원식 전 전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정부부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26일 새로운미래에 입당한 신원식 자치도당위원장은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로운미래 소속으로 전주갑 지역구에 뛰어들다.
전북도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선거현 전 신북지포럼 전북 이사장이 수석공동창당위원장을, 양영두 김대중재단

상임지도위원·진남표 전 고창군의회 의장·진봉현 법무법인 제일 대표변호사·한기대 남원행복만들기 회장·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제9대)이 공동창당위원장을 맡았다.
또 대외협력위원은 김진 전 JCOM 회장, 정부위원은 박정재 새전북신문 부사장 등이 맡았다.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거대 양당의 횡포로 실종된 대한민국 정치를 되찾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 전통을 되살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했다.
당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국정 기초 전환 촉구 △거대 야당의 도덕성 및 가치·품격 회복 △다당제 민주주의를 통한 서민이 행복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국가 건설 △역동적 성장과 정의로운 분배 실현 △기존 정당의 공직 추천 체계의 민주적 개선 등 5가지를 결의했다.
신원식 자치도당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이낙연 새로운미래 위원장께서는 진정으로 용기있는 지도자로 수십년간 애정을 가지고 몸담아왔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하는 쓰라린 가슴을 우리는 이해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깨어있는 시민과 정치인

들이 나서서 정치선진화와 국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야 하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미래’의 소명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자치도당위원장은 이어 “이제 저희들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용기를 가지고 불의에 맞서며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라며 “주권자인 국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래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희망의 정치’, ‘생산적 정치’를 펼쳐 나가며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따뜻한 정치’를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새로운미래 전북특별자치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 이낙연 인재영입위원장은 “신당 창당은 민주세력의 분열이 아닌 재건이라고 확신”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남들이 나에게 변화했다고 하는데 변한 것은 내가 아니

라 더불어민주당이고 답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 24년간 있으면서 5선의 국회의원도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총리, 대대포 등 많은 것을 누렸다”면서 “그동안 2009년 열린우리당과 2017년 국민의당이 창당해 호남에 녹색바람이 불 때도 저는 민주당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때 당을 떠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의 정신과 전통,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의 정신과 전통, 가치를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당과 국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 앉아서 볼 수 없었으며 가만 있는 것이야말로 배신이 아니냐”면서 일각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하는 ‘배신론’에 일침을 가했다.
또 이 위원장은 “거대 양당체제에서 양쪽이 다 싫다는 국민들에게 ‘그렇다면 이 길(제3의 정당)은 어떻습니까’라고 권하는 것이 정치”라며 “국민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주고 그 의견을 국정에 반영해야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을 떠난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당의 재건이자 확장”이라면서 “편한 길만 가면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고 당원들을 독려했다.
함께 참석한 김종민 미래대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진짜 위기는 ‘네티즌의 위기’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통합과 협력의 길을 가기는커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막고 가족들이 방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대한민국이 맞느냐”고 성토했다.

민주당 공공의료TF 공공의대법 등 의견 청취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이하 ‘민주당 공공의료TF’, 단장 김성주 국회의원·사진)가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민주당 공공의료TF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해당 법안들이 조속히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적위 수석부위원장이 TF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의 의견 대부분이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며, “야당은 적극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하고 호응하고 있다. 여당이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이 기회에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에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라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통합을, 국민의힘은 지역인 의사의 지나친 신임과,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료의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의료, 필수요리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을 21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입장이며, 공공의료의 회복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조합과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청취

“장례식장 다화용기 조정, 재활용 수거 교환 활성화”

한복위, 환경녹지국·보건환경연구원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6일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새만금해양수산국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환경녹지국 소관 축산분뇨처리장, 가로수 관리,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관련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환경관련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지방하천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지방하천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개최시 해당 도의원에 집시 설명을 요구하며 기후변화와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다양

한 하천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다화용기 사용 관련해 장례식장 이용 현황을 질의하며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다화용기 사이즈가 크며 사용 용기 조정을 요구하며 재활용품 수거 교환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대와 관련, 도내 충전시설 현황을 질의하며 충전시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전기차 충전이 어렵다며 원활하게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시설확충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완주 통합 등 문제, 지자체와 공감대 형성해야”

행자위, 자치행정국 등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26일, 제406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자치행정국 등 202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강태창 의원(군산1)은 노후된 병난방기 교체 등 청사관리와 직원 근무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고 노조위원장의 공약사항이 발만잡 직원들이 노후된 장비와 시설에서 근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으며, 청사 시설·장비와 관련해 연차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체계획을 세워 쾌적한 근무 환경으로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새만금 잼버

리 부지의 유일한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했을 때, 각고의 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활용방안에 각별히 유념할 것을 주문했고,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와 관련 타지자체의 사례도 참고하여 수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헌신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한 만큼 갈등이 잦았던 전 주·완주 통합이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추진 등 전북자치도가 조정 역할에 의지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이재명·배현진 피습... “신념 다르면 공격 당해”

“한국 정치, 맹목적인 추종 만연화”

유튜브 정치 콘텐츠 등 감독 필요성 제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등 새해 들어 정치인 두 명이 습격 당하면서 양극화된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을 우려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정치인과 온라인상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둔기로 공격한 10대 중학생 A군을 특수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건설 현장에서 흉기로 목을 찔린 지 23일 만이다.
배 의원의 해당 일정을 미리 공개하지 않았다고 한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다니는 미술실에서 사인을 받으려고 기다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정치적 발언 자체가 조심스러운 사회가 됐다고 말한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

하는 강모(34)씨는 “주위에 사람을 대동하고 다니는 국회의원들도 갑자기 습격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며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도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제든 공격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한모(29)씨도 “정치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험악해지곤 해서 연말과 신년 모임에서도 관련 주제를 최대한 피했다”며 “정치가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단화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배 의원 피습은 이 대표 사건과 달리 경찰 조사 초기이기 때문에 정치 테러로 단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극단화된 한국 정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울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배 의원 피습은) 정신 이상자의 이상 행동 때문이라면 정치 테러로 볼 수 있는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30년 전부터 범행 장

소 인근을 서성인 것과 중학생이 배현진을 어떻게 아는 지 등에 관한 의문은 있다. 미성년자가 정치인 배현진을 안다는 것은 정치에 과도한 관심이 있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고 질었다.
이어 “한국 정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팬덤이 생기고 그에 따른 맹목적인 추종이 발생해 자신이 추종하는 대상에 반하는 사람은 적으로 규정된다”며 “여기에 불보시게 역할을 하는 게 유튜브”라고 꼬집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도 “배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과 같이 학생들에게도 극단으로 가고 있는 정치 현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인들이 증오와 악마의 정치를 멈추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정치인들 책임도 있지만 과격한 유튜브 정치 콘텐츠들이 잘못된 이념의 고착화나 정치 양극화를 더 부채질하고 있다”며 “SNS와 1인 방송 등에 관한 감시와 감독이 엄격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시스

김관영 도지사, 청년들과 영화 ‘길위에 김대중’ 관람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휴일인 지난 27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을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을 관람했다.
이번 관람은 김대중재단의 이사가기도 한 김 지사가 1987년 민주화 이전의 역사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과 함

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과 철학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취지에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관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청 간부 공무원과 전북 청년 5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영화 관람을 마친 김 지사는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인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와 철학을 반추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었다”며, “죽음의 위협마저도 넘어서 민주주의를 향한 그분의 신념, 감옥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먼저 기도했던 그분의 마음,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길을 연 그분의 철학, 이 모든 헌신과 성취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이정표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훈 기자

자치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6일 제 40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임업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운영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론했던 연구 인력 수급 문제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훈 기자

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도의회 농산임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프리랜서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프리랜서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 부재,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조례는 다음달 2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재훈 기자